

한국 근대 개화기 기행문에 나타난 식물원

김정화* · 조경진**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전공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I. 연구 배경과 목적

조경 뿐 아니라 지리학, 역사학 등 다양한 분야의 많은 학자들이 식물원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식물원이 새로운 사상이 논의되고 확산되는 “접촉 지대(contact zone)”이기 때문이다 (Johnson, 2011: 7). 예를 들어 엠마 스페리(Spary, 2000)는 18세기 후반의 파리 왕립식물원에서 이루어진 자연사 탐구와 논의가 프랑스 혁명과 계몽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였고, 역사학자 리처드 드레이튼(Drayton, 2000)은 18, 19세기 영국에서 합법성, 지식, 미적 태도, 풍부한 생산량 등을 의미하던 ‘향상(improvement)’이라는 통치 개념이 큐 왕립식물원을 중심으로 실천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

급진적 변화 시기였던 우리의 근대기에 ‘접촉 지대’의 역할을 했던 식물원이 있었는가? 우리나라의 근대기 식물원으로는 1909년 창경궁 내 창경원이라는 이름으로 박물관, 동물원과 함께 조성된 것이 있다. 그러나 이 식물원의 설계자인 후쿠바 하야토(福羽逸人)의 회고록에 따르면, 계획의 제안자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총 감독이 고미야 미호마쓰(小宮三保松)였다(Fukuba, 2006). 따라서 이 식물원은 본고의 논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흥미로운 점은 그보다 앞선 근대 개화기에 식물원의 태동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비록 공간으로 만들어지지지는 않았으나, 근대 개화기 식물원에 대한 한국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문헌들이 존재한다. 1876년 일본을 방문한 수신사를 시작으로 해외에 파견된 사절단의 여정에 식물원이 있었으며, 해외 유학생과 학자들의 기행문 등에도 식물원이 언급되곤 하였다. 심지어 유길준은 『서유견문』을 통해 “정부에서 힘써 행하는 것”(유길준, 1895: 197)으로써 식물원 조성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근대 식물원의 연원을 찾는 데 목적을 둔다. 그 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지식인 및 사회 리더들이 작성한 식물원 관련 문헌을 살펴봄으로써 근대 사회로 이행해가던 시기에

논의된 식물원의 개념과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II. 연구 범위와 방법

근대 개화기에 논의된 식물원의 특징에 접근하기 위하여 1876년 강화도 조약부터 1910년 한일병합 조약 체결 사이에 작성된 식물원 관련 문헌들을 살펴보았다. 관련 문헌들은 일본, 러시아, 영국에 파견된 사절단이 기록한 문헌들과, 개화기의 대표적인 해외 유학생인 윤치호의 일기와 유길준의 책, 그리고 근현대잡지에 등장하는 식물원 관련 글 등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1876년부터 1884년까지 일본에 파견된 사절단들이 남긴 문헌으로는 1876년 김기수 일행의 『일동기유(日東記遊)』, 1881년 이현영 일행의 『일사집략(日槎集略)』, 1882년 박영효 일행의 『사화기략(使和記略)』, 1884년 박대양 일행의 『동사만록(東槎漫錄)』이 있는데, 원문과 국역본이 함께 실린 1977년 민족문화추진회 편 『국역 해행총재』를 자료로 이용하였다. 1896년에 파견된 러시아 사절단이 남긴 견문록으로는 김득련의 한시집 『환구음초(環瓊吟艸)』와 민영환의 『해천추범(海天秋帆)』이 있다. 각각 원문과 국역본을 함께 실고 있는 허경진과 이민수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1897년 영국에 파견된 민영환의 『사구속초(使歐續草)』를 살펴보기 위해 역시 원문과 국역본으로 함께 실고 있는 이민수의 『민충정공유고(閔忠正公遺稿)』를 자료로 이용하였으며, 1895년에 출간된 유길준의 『서유견문(西遊見聞)』에 대해서는 원문과 허경진의 국역본을 함께 살펴보았고, 윤치호 일기는 윤경남의 번역본을 자료로 참고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한국근현대잡지자료 중 1876년부터 1910년 사이에 작성된 식물원 관련 글로 1907년 잡지 「서우(雜誌)」에 실린 「신가과의 식물원담(新嘉坡의 殖物園談)」을 살펴보았다.

III. 근대 개화기 식물원 기록과 견해

1. 1876-1884년 일본 사절단의 견문록

일본에 파견된 사절단은 대체로 식물원과 그 유사시설인 박물관 및 동물원에 대해 무관심 또는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 측의 안내서인 『항한필휴(航韓必携)』에 따르면, 1876년에 파견된 첫 일본 사절단인 김기수 일행은 박물관, 우에노공원, 고이시가와 식물원, 스가모 식물옥, 호리키리쇼부 식물원 등지를 방문하기로 되어있었다(박탄, 2009: 32-38, 재인용). 그러나 김기수 일행은 견문록 『일동기유(日東記遊)』에 식물원에 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단지 박물관의 진열 방식을 묘사했을 뿐이다. 19세기 말 개화운동의 대명사였던 박영효조차 1882년 임오군란에 대한 사과와 협의 차원에서 방문했을 때, 견해 없이 도서관과 여자사범학교, 박물관, 창평관, 동물원의 방문 사실만 기록하였다(박영효, 1977: 358). 한편, 1884년 갑신정변 처리 논의를 위해 파견된 박대양 일행은 박물관 내 동물원을 민생을 궁핍하게 하는 사치로 인식하고 “나라를 위한 급무는 아닌 것”(박대양, 1977: 428)이라며 비판하였다.

한편, 유길준과 윤치호가 수행원으로 포함되어 있었던 1881년 이현영 일행의 신사유람단은 박람회 목적이 “상품 판매를 돕기 위한 것”과 “부국이라는 이름을 자랑”(이현영, 1977: 25)하는 것에 있다고 언급하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여러 박람회와 박물관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신사유람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본 사절단들은 식물원을 방문했다라도 자세한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다. 일본 사절단들은 식물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1896년 러시아 사절단의 견문록

1896년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을 축하하기 위한 사절단으로 민영환, 윤치호, 김득련 등 조선인 5명과 러시아 공사관 서기관 스타인(E. Stein) 1명 등 총 6명이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파견되었다. 이들은 대관식 이후 두 달여 동안 러시아의 수도 페테르부르크에 머무르면서 러시아의 문물과 제도를 돌아보고 이를 기록으로 남겼다. 이들은 체류 기간 동안 상트페테르부르크 식물원에 방문한 것으로 추측되는데,¹⁾ 해외 방문이 처음이었던 민영환이나 김득련은 “높은 집을 쌓아 수백

간인데 위에는 유리를 깔아 햇빛을 받고 아래에서는 나무를 때어 더운 기운을 취한다”(민영환, 2000: 142) 혹은 “유리로 만든 집이 백 칸도 넘어 온갖 나무 이름난 꽃에다 이름표를 달았네”(김득련, 1897: 78)라며 온실의 규모, 전시법, 구조 및 기능을 감탄과 함께 서술하였다.

3. 1897 영국 사절단의 견문록

민영환은 러시아에서 귀국한 3개월 뒤인 1897년, 영국 빅토리아 여왕 즉위 60년 축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재차 유럽을 방문하였다. 이때 그는 런던 내 어느 공원에 위치한 식물원을 둘러보았는데, 그곳의 온실 규모와 구조, 식물종을 『사구속초』에 간략히 기술하였다. 특히 그는 식물의 원산지 기후 특성에 맞추어 유리, 난로, 증기 등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온실에 주목하였다. 그는 온실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두고 “서양 사람의 꽃 기르는 법”이라고 소개하며 온실의 원리가 “이치” 있다고 평가하였다(민영환, 2000: 259).

4. 유학생의 기록

윤치호는 1896년 민영환과 함께 러시아에 사절단으로 파견되었을 때 방문한 상트페테르부르크 식물원에 대해 “식물원은 내가 가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다”(윤치호, 1896: 138)라는 감상을 간략히 남겼다. 그는 러시아 사절단의 임무를 마치고 수행원과 헤어져 따로 돌아오는 길에도 베트남 사이공 식물원을 방문하였다. 물론 “식물원을 방문하다”(윤치호, 1896: 306)라고 간략히 언급했을 뿐 식물원에 대해 평을 하지는 않았으나, 새로운 도시를 방문할 때 식물원도 방문하는 행위와 여러 식물원을 둘러본 경험이 있다는 사실은 그가 식물원을 중요한 시설로 인식했음을 증명한다.

유길준은 그의 저작 『서유견문』에서 보스턴 비콘 가 공원에 위치한 식물원, 영국 런던의 리젠트 공원 내 식물원, 그리고 벨기에 브뤼셀 왕궁 내 식물원을 예로 들며 식물 종류의 다양성, 아름다움, 유리 온실 내 생육환경 등을 서술하였다. 특히 그는 식물원에 대해 단순한 감상에 그치지 않았다. 박물관, 도서관, 공원과 함께 식물원을 “국민의 지식을 도와주는 커다란 기틀”(유길준, 1895: 197)이라고 규정하면서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중 하나로 식물원 조성을 언급하였다.

1) 식물원의 명칭이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생물원(生物院), 즉 동물원을 지나는 길에 한 화원에 들렀다는 것을 보아 레닌그라드 동물원과 약 3km 거리에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식물원에 갔던 것으로 추측된다.

5. 잡지 「서우」의 기행문

「서우」는 평안도와 황해도 출신의 서울 지식인들이 모여 구국 계몽을 목적으로 만든 국내 최초의 학회 서우학회에서 발간한 잡지이다(최덕교, 2004: 96-97). 1906년 12월 1일에 창간된 이 잡지는 10월호인 1907년 10월, “신가과의 식물원담”을 실었다. 저자미상의 이 글은 주필 박은식이 작성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일본 입학박사 아무개씨의 이야기가 “취미가 몹시 있어 불 이유가 있다”(저자미상, 1907: 21)는 설명과 함께 7쪽에 걸쳐 실려 있다. 이 방문기는 앞서 살펴본 해외 사절단의 견문록이나 유학생의 글과 달리 식물원 내 여러 식물의 수종, 높이, 성분, 용도 등을 세세하게 설명하며 전문적인 식물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정문의 왼쪽에 한 무리의 종려수와 닮은 것은 서곡야자인데 서양요리에 이용하는 ‘세-고’미란 것이 이 나무의 열매는 아니오 실로 이 줄기 중에 포함된 진분으로 한 것이라”(저자미상, 1907: 22)와 같은 식이다.

IV. 결론

한국은 1876년부터 1910년 사이, 해외 여러 나라와 교류를 시작하며 새로운 문물을 접하며 사회 구조를 바꾸어 나갔던 개화 과정을 겪었다. 이때 해외로 파견된 사절단이나 유학생 등은 체류 도시에서 방문했던 식물원에 대한 기록을 남기며 식물원의 개념과 특성, 필요성을 말하기 시작했다. 비록 개화 초기인 18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에 파견된 사절단은 식물원을 방문하고도 특별한 언급하지 않거나 비판적 견해를 드러내는 등 식물원을 중요한 시설로 생각하지 않았으나, 1890년대 이후에 작성된 사절단이나 유학파의 글에서 식물원은 근대 도시 및 국가의 대표적 문물이자 필수 시설로 등장한다. 특히 우리 온실의 구조와 기능이 식물원의 주요 특성으로 부각되었으며, 식물원은 학문과 지식을 제공하여 근대를 견인할 수 있는 계몽 시설로 인식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 근대기 식물원의 태동에 관한 기초 연구로, 근대 개화기 해외 견문 과정에서 작성된 식물원 관련 문헌들을 통해 한국 근대 식물원의 서막을 살펴보았다. 본 글에서 살펴본 문헌의 필자들은 계몽 잡지, 신문, 단체의 주요 구성원이자 정부의 주요 관직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이 해외 식물원 견문 이후에 식물원 조성을 위해 시도한 정책이나 노력들을 추적하는 후속 연구를 진행하여 한국 근대 식물원의 지평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기수(1977) 국역 해행총재 10(민족문화추진회 편, “일동기유”),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pp. 341-519.
2. 김득원(1897) 환구음초, 허경진(역), 환구음초, 서울: 평민사, 2011.
3. 민영환(2000) 민중정공유고(국사편찬위원회 편, “사구속초”), 이민수(역), 서울: 일조각, pp. 207-276.
4. 민영환(2000) 민중정공유고(국사편찬위원회 편, “해친추범”), 이민수(역), 서울: 일조각, pp. 109-201.
5. 박대양(1977) 국역 해행총재 11(민족문화추진회 편, “동사만록”),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pp. 401-468.
6. 박영호(1977) 국역 해행총재 11(민족문화추진회 편, “사회기략”),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pp. 315-399.
7. 박탄 (2009) 일본 수신사의 사행록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8. 유길준(1895) 서유견문. 허경진(역), 서유견문. 과주: 서해문집, 2013.
9. 윤치호(1896) 윤치호 일기. 윤경남(역), 민영환과 윤치호, 러시아에 가다. 서울: 신앙과지성사, 2014.
10. 이현영(1977) 국역 해행총재 11(민족문화추진회 편, “일사집략”),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pp. 7-314.
11. 저자미상(1907) 신가과의 식물원담. 서우 11: 21-27.
12. 최덕교(2004) 한국잡지백년. 서울: 현암사.
13. Drayton, R. H. (2000) Nature's Government: Science, Imperial Britain, and the 'Improvement' of the Worl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4. Fukuba, H. (2006) 福羽逸人 回顧録. Tokyo: Kokumin Kouen Kyoukai Shinjuku Gyoen.
15. Johnson, C. N. (2011) Nature Displaced, Nature Displayed: Order and Beauty in Botanical Gardens. London: New York: I.B. Tauris.
16. Spary, E. C. (2000) Utopia's Garden: French Natural History from Old Regime to Revolu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7.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http://db.history.go.kr>